

## 지혜가 부르는 소리

### 잠언 1:20 - 33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본문의 지혜는 예수님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공개적인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탐내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옳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죄이며, 그것이 죄의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잘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은 얻을 수 없으며,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거룩의 길로 부르십니다.

거룩함은 가장 의로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거룩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속에서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훈계하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의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으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가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따라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